

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정치인의 미화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독자들이다"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시간이 흘러 정치 출판의 내용이나 형식이 아무리 정교하고 다양해졌다 할지라도 출판의 원칙은 변함없이 단순한 것이다. 자서전과 에세이집이라면 진실을,

정책집이라면 검증된 전문성을, 정치평론집이라면 편향되지 않은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이 기본 원칙을 지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책을 출간한다면 자극적인 홍보 없이도 진정으로 국민의 의식과 감성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이다. **■**

16대 9명의 대통령, 그들에 대한 집권 평가서는?

글 이주연 기자

현 16대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모두 9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각 대통령의 집권말기에 이르면 그에 관한 집권 평가서들이 출간되는데 주로 '리더십' '민주화' '경제 성장' '개혁' 등을 기준으로 집권 정부의 과오와 치적을 평가하게 된다. 일종의 '채점'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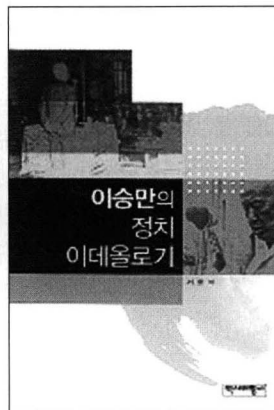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관해서는 부정적 평가서가 압도적이다. 국가를 건설하고 산업화 추진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지만 독재와 부패로 인해 실패한 정권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등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집권 평가서를 가진 인물로,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경제를 살렸다는 점에서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나》류의 책이 있는가 하면, 독재 정권의 부정적 화신으로 그를 묘사한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류의 책이 존재한다. 한때 외환 위기와 경제난국을 겪으며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복고적 향수를 담은 책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권 평가서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독재'나 '부패'에 관한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에 초점을 맞춘 평가서가 많다. 특히 강준만 교수의 《김영삼 이데올로기》는 특유의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문체로 김영삼 정부를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IMF 위기를 극복했지만 과도한 경기부양책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부



동산 가격 폭등의 악재를 조성했다는 평가다. 《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대중 정권의 흥망》 등 박 전 대통령 이상으로 많은 집권평가서를 가진 대통령이다.

끝으로 현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도 그에 관한 정치 평론서가 다수 출간되어 일종의 '선거 홍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재미있는 것은 대선 기간 중 그를 지지했던 정치 논객들은 정작 그의 집권이 시작되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책들을 출간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노무현은 배신자인가》 등이 있다.

이런 집권 평가서는 독자들에게 대통령과 정당의 올바른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다양한 평가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중심의 평가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정적 정치 평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긴다. **■**